

〈임화정연〉의 서사적 특징을 통해 본 통속소설의 정치성*

허순우**

<차례>

1. 서론
2. 가문의식, 역사인식, 매너리즘
3. 편력자들의 서사
4. 귀환의 서사와 확장 서사
5. 여성 중심 확장 서사의 의의와 정치적 함의

〈국문초록〉

본 논문은 지배적인 문화와 정체성의 체계모니에 맞서 ‘치안(통치)’에 균열을 일으키고 평등의 과정을 현실태로 만들어내는 움직임으로 정의되곤 하는 ‘정치성’ 개념을 활용하여 국문장편소설 〈임화정연〉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정난변(靖難變)’, ‘별열(閼閔)’, ‘가문 연대(家門連帶)’ 등 정치와 관련한 요소들을 핵심어로 내세운 연구 성과들이 이미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임화정연〉의 정치성에 주목해보는 까닭은, 기존에 이루어진 ‘정치’와 관련한 논의들이 주로 작중 남성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나머지 반쪽에 해당하는 여성들의 행위 혹은 그들이 경험한 사건 등까지 아울러 고르게 주목한다면 ‘정치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임화정연〉을 분석 대상으로 선택한 또 다른 이유로는, 이 작품이 전형적인 사대부문학과는 대비되는 통속문학이자, 19세기를 전후한 조선 후기에 향유된 작품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17세기 이후 강화되기 시작한 사대부 계층의 보편적 가문의식이 쇠

* 이 논문은 “2016년 고전문학한문학회 동계기획학술대회”(2016. 2. 25)에서 발표한 내용을 논문화한 것임.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퇴의 길로 접어들고, 국문장편소설과 그 향유층이 접하는 영역 또한 축소되기 시작한 19세기 언저리에, 여전히 가문과 정치를 서사의 주 소재로 삼아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통속소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학의 정치(Politique de la littérature)’는 어떠한 모습일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답을 찾기 위해 먼저 정치적 속성과 연관하다 할 수 있는 요소 가운데 가문의식과 역사인식을 중심으로 작품을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이 작품이 구현하고 있는 가문의식이나 역사인식은 앞선 시기 향유되었던 국문장편소설의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무더진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대신 <임화정연>은 집 밖을 떠도는 작중인물들(편력하는 자들)을 활용하여 작품의 무대를 가문의 담 너머로 적극 확대하였고, 그 결과 집 안의 문제는 물론이고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건들을 작품 안으로 끌어들이고 풍자함으로써 공고한 ‘상층’, ‘남성’ 중심의 사회에 균열을 일으키는 정치성을 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집 밖을 떠도는 인물 중 최종적으로 집으로 귀환하지 않는 인물들을 통해, 이 작품은 봉건 체제나 기존의 관습을 지향하는 듯한 서사의 이면에서 비 양반적인 감성으로 집 밖의 세계를 지향하는 확장의 서사, 탈주의 서사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특징은 집 밖으로의 확장을 이야기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귀환의 서사로 귀결되는 신소설의 특징과 대비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통속소설, 정치성, 문학의 정치, 편력, 귀환의 서사, 확장의 서사

1. 서론

최근 학계에서 관심 있게 논의된 주제 가운데 하나로 ‘문학과 정치’를 꼽을 수 있다. 문학과 정치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문학과 정치의 끈질긴 길항 관계를 지나치게 안이한 방식으로 해소해서는 안 된다는 반성적 성찰¹⁾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반성적 시각에

1) 손유경, 『프로문학의 정치적 상상력-김남천 문학에 나타난 ‘칸트적인 것’들』, 『민족

서 이야기 되는 정치 개념이 일반적인 정치에 가까운 것이라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확장된 개념인 ‘정치성’을 문학에 적용하여 작품을 들여다보는 것은 ‘문학’과 ‘정치’의 긴장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문학의 정치를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연구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랑시에르는 ‘정치적인 것’과 ‘정치’의 개념을 구분하면서 “정치가 아니라 정치적인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통치 책략이 아니라 법, 권력, 공동체의 원리들에 대해 말하는 것임을 가리킨다.”²⁾라고 했다. 또 공통의 삶이라는 심급을 대상으로 삼는 정치적인 것에 대한 성찰은 “정치적 결집 방식을 움직이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사유”³⁾라고 하였다. 물론 민주주의와 결부되어 도출된 그의 ‘정치적인 것’에 관한 개념이나 성찰을 우리 고전소설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문제제기가 고전문학과 정치, 고전문학과 정치성 등에 관한 논의의 폭을 확장, 심화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는 있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권력이나 공동체의 원리, 그리고 삶의 방식이라는 정치성 개념을 우리 고전소설에 적용시켜보고자 한다.

우리 고전문학을 대상으로 하여 ‘정치’ 혹은 ‘정치성’을 고찰해본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니, 대체로 좁은 의미의 정치 개념을 사대부 남성 문학에 주로 적용, 검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정치성에 대해 말한다 하더라도 “한문학의 담당자는 士大夫이다. 사대부는 그 성립과 존재방식 자체가 정치와 관련을 지닌다. 한문학 작가와 작품을 이해하고자 할 때, 정치 장에서의 정치권력의 향배를 주의 깊게 음미하는 것

문학사연구』 45,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112쪽.

2) 자크 랑시에르,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양창렬 옮김, 도서출판 길, 2013, 14쪽.

3) 자크 랑시에르, 앞의 책, 2013, 15쪽.

은 필요하다.”⁴⁾라는 문장에서 잘 드러나듯이 여건상 정치와 정치성 개념을 혼합하여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정치에 직접 참여하여 지위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갈등했던 사대부들의 삶과 문학이 아닌 것, 즉 사대부 문학이라고 보기 어려운 문학이나 허구성에 기반을 둔 소설문학에서도 “통치원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적인 문화와 정체성의 헤게모니에 맞서 ‘치안(통치)’에 균열을 일으키며 평등의 과정을 현실태로 만들어내는 움직임”⁵⁾인 정치성을 찾을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문장편소설 가운데 상대적으로 후기 작품에 해당하는 <임화정연기봉(이하, 임화정연)>⁶⁾을 대상으로 하여 작품에 담겨있는 정치성에 대해 생각해보려 한다.⁷⁾ <임화정연>을 분석 대상으로

- 4) 진재교, 「조선조 후기 정치 장에서의 권력향배와 한문학-다산 정약용의 문학을 읽는 하나의 방법」, 『고전문학연구』 46, 한국고전문학회, 2014, 337쪽.
- 5) 노현주, 「남성 중심서사의 정치적 무의식 - 이병주 소설의 여성인물 형상화를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14, 국제한인문학회, 2014; 김유정, 「식민지 시대 관습의 법제화와 문학의 젠더 정치성 - 이선희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3, 한국여성문학회, 2014.
- 6) 주 자료로는 강촌재 소장본 72권 72책 <임화정연기봉>을 활용하였고, 비교가 필요한 경우 6권 6책의 구활자본 <임화정연>(김기동 편, 『활자본고소설전집』 8, 9, 아세아문화사, 1976)을 참고하였다. 최근 강촌재 소장 <임화정연>의 완본(完本), 선본(善本)적 가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논문(정명기, 「강촌재본 『임화정연기봉』을 넘어서 - 세책본소설·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본·구활자본과의 비교를 통해서 본-」, 『열상고전연구』 41, 열상고전연구회, 2014, 51~119쪽.)이 발표되었다. 해당 논문은 강촌재 소장 <임화정연>의 한계와 오류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임화정연> 연구에 적합한 선본(善本)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는 않았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완질본인 강촌재 소장 <임화정연>과 활자본 <임화정연> 중 본 필사본 강촌재 소장 <임화정연>을 주 자료로 삼았다.
- 7) 그런데, 이 작품이 비록 사대부 남성의 문학은 아니지만, <임화정연> 또한 사대부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정치현실에 참여하는 허구적 인물들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 관한 내용과 ‘정치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때로는 겹치고, 때

선택한 것은 이 작품이 전형적인 사대부문학과는 대비되는 통속문학⁸⁾에 속하는 작품이기 때문이다.⁹⁾ 또 17세기 이후 강화되기 시작한 사대부 계층의 보편적 가문의식이 쇠퇴의 길에 접어들고, 국문장편소설과 그 향유층의 영역 또한 축소되었던¹⁰⁾ 19세기 언저리에, 여전히 가문과 정치를 서

로는 분리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전제한다.

- 8) '통속'의 개념 변천을 다룬 연구에 따르면 '통속'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910년대이며 1920년대까지 '통속'이라는 용어는 '공통적인 것'이라는 의미로 인식되었고 '통속'에 '저급'이라는 개념이 결부되기 시작한 것은 해방 이후이다.(강용훈, 『'통속' 개념의 변천 양상에 대한 역사적 고찰』, 『대동문화연구』 8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참조.) 그러나 '통속'이라는 어휘의 사용이 빈번하지 않아서 그렇지 문학과 '통속'이 만난 예는 한글 창제 이후 중국 통속소설을 번역하고 필사하는 것이 유행이었음을 보여주는 기록들을 통해서도 종종 볼 수 있다.(장수연, 민관동, 『중국 통속소설의 국내 유입과 수용 연구』, 『중국소설논총』 41, 한국중국소설학회, 2013 참조.) 통속성에 관한 고전문학 분야의 기존 연구들을 보면 비평했던 것, 전아했던 것 『雅』, 혹은 상층지향적인 것이 속화(俗化)되거나 민중 지향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통속화'라고 볼 수 있다.(윤채근, 『한문소설에 등장하는 死産된 영웅과 그 의미 - 통속적 이웃의 탄생-』, 『한문학논집』 38, 근역한문학회, 2014; 이동재, 『담정 김려의 한시에 나타난 통속성 연구』, 『한문학논집』 39, 근역한문학회, 2014.) “경국문장이나 화국문장이라는 계층적, 정치적 이념으로부터 이탈되어 민간생활의 장에 밀착하는 한사(寒士)들의 문학”(심경호, 『한국한문학이 지닌 다층성의 한 구현, 통속성』, 『한문학논집』 39, 근역한문학회, 2014, 10쪽.) 등을 '통속문학'으로 정의하는 관점에 따르면 본격적인 사대부 문학과 거리가 있는 국문장편소설을 통속소설이라 부를 수 있다.
- 9) 1960년대 후반 김승옥이 선정적, 대중적 중간지에 게재했던 소설의 의미를 찾은 한 연구(김정연, 『통속의 정치학-1960년대 후반 김승옥 '중간지 소설' 재독(再讀)』, 『어문론집』 62, 중앙어문학회, 2015, 373~420쪽.)에서는 그의 작품의 의미를 “통속의 정치학”이라는 데에서 찾았다. 그는 통속적 글쓰기를 문학적 퇴행을 보여주는 부정적 활동이 아니라 오히려 “적나라한 생활/현실과의 접속”을 보여주는 작업이라고 평가하였다. 연구자는 생활의 부재와 배제를 중용하는 시대에, 삶에 대한 ‘방법론적 회의’로서의 소설에 대한 한계를 자각한 김승옥이 의도적으로 통속소설을 통해 시대적 리얼리티를 포착하여 “비윤리적 사태에 대한 고발을 함축한 것이라면 60년대 후반 김승옥의 소설을 이른바 ‘통속의 정치학’이라는 문제설정 속에서 다시 읽는 것은 가능하며 더욱 필요한 작업”이라고 하였다. 정치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는 듯 보이는 텍스트에서 정치적인 면모를 찾는 작업의 의미를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10) 장효현, 『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236쪽.

사의 주된 소재로 삼고 있는 19세기 즈음의 국문장편소설이 구현하고 있는 문학의 정치가 궁금했기 때문이기도 하다.¹¹⁾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그간 이루어진 <임화정연> 연구를 간략히 검토해보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작품의 구조적 불연속성을 해명하는 연구이다. 작품의 주인공을 누구로 볼 것인가, <임화정연>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왜 연속성을 지니지 못하는가에 관한 연구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광국은 이 작품의 구조적 특이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임화정연>의 구조를 “복수 가문의 병렬적 연대를 구성 원리로 하여 작품세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작품이 “19세기 사회에서 별열 말기적 증후를 포착해 내면서 그러한 정치적 세력을 대체하려는 신흥 권문세가군 출현의 소망을 형상화”한 작품¹²⁾이라고 평가하여 구조적 불일치 문제에 대한 나름의

11) <임화정연>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까닭에 관해 부연하자면, 물론, <임화정연> 외에도 조선후기의 통속소설로 명명할 수 있는 작품들은 많다. 그런데 여러 작품 가운데 본 논문에서 <임화정연>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까닭은 조선 후기 통속소설 중에서도 작품에 대한 논의가 일정 정도 이루어져서 ‘정치성’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확장된 연구를 진행해도 무리가 없는 대표적인 작품을 살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 선행 연구를 언급한 부분에 나타나 있듯이, 이 작품을 ‘별열지향’, ‘가문의식’, ‘가문 연대’ 등 ‘정치’로 수렴될 수 있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가 있다는 점도 이 작품의 ‘정치성’을 새롭게 분석해보게 된 이유이다. 마지막으로는 지배적인 질서와 문화에 맞서는 인물들의 행위를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12) 조광국, 「<임화정연>에 나타난 가문연대의 양상과 의미」, 『고전문학연구』 22, 2002, 186쪽. 이 논문에서 필자는 홍희복의 <제일기연> 서문 기록을 근거로 하여 <임화정연>을 19세기 소설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김지연은 18세기 <옥원재합기연>에 필사된 소설 제명 중 <임화정연>이 <임화정연>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김지연, 「<임화정연>의 서사전략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2~13쪽.) 본 발표는 세기를 확정하지는 않지만, <임화정연>이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을 비롯한 초기 국문장편소설보다는 비교적 후대에 향유된 작품이라는 시각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 <임화정연>의 구조에 관한 선행연구는 조광국의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

답을 내 놓았다. 또 다른 하나의 연구 경향은 <임화정연> 속 어머니, 시비, 첩 등 여성인물들에 주목한 연구들이다.¹³⁾ 이들 연구를 보면 새로운 가문 연대를 꿈꾸는 작품이라는 특징을 말하기 위해 현실 정치에 관한 면면을 이야기 하였고, 또 정치성의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는 시비나 첩과 같은 여성 인물들의 행위에도 주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임화정연>에 주목하는 까닭은 이 작품이 드러내고 있는 가문의식이나 역사의식이 과연 진지한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에 관해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또 지배 문화에 균열을 가하는 데 기여한 서사적 특징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 가문의식, 역사인식, 매너리즘

국문장편소설(가문소설)이 상층 사대부가의 창달과정을 서사의 주된 내용으로 삼는 장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문장편소설은 가문의 번성과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 혼사와 결부된 갈등의 해결과 가문간의 연대 과정을 서술하고, 간신이나 역적, 혹은 외세가 유발한 국난의 극복 과정을 서술하며 가문 구성원들을 가부장의 통치권력 하에 결집시켜 나가는 과정을 서술한다.¹⁴⁾ 이때, 간신과의 대립이나 외적의 퇴치와 같은 문

13) 한길연, 『탈속 공간을 지향하는 여성영웅들에 관한 소고 -<화정선행록>의 ‘충효혜’와 <임화정연>의 ‘석가월’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7, 국문학회, 2002; 한길연, 『모성 담론의 문화적 형성과 재현: 고대에서 근대전환기까지 모성 담론의 문화적 조명』,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허순우, 『<임화정연> 소재 “첩 관련 서사”의 양상과 그 의미』, 『어문논집』 67, 민족어문학회, 2013 등을 참조할 수 있다.

14) 구성원의 욕망, 소외되는 남성과 여성처럼 인간으로서의 개인,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제는 말할 나위 없거니와, 혼인과 관련된 문제들도 (황실을 포함한) 가문 간의 결합이나 대립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는 애초 국문장편소설이 등장하게 된 배경¹⁵⁾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들이다.

국문장편소설 중 초기 형태에 속하는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현몽쌍룡기>는 가문의식과 역사인식, 그리고 정치에 관한 관심을 잘 보여주는 한 예에 해당한다.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작품을 구성하는 중심 사건 중 하나는 조무와 금선공주 부부간의 갈등이다. 이 사건은 가문 내적으로 보면 한 집안에 새롭게 진입한 금선공주가 며느리의 본분에 합당 태도를 갖추기까지 가족 구성원들과 벌이게 되는 힘겨루기와 순응의 과정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것을 가문 외부로 확장시켜보면 영향력 있는 사대부가와 황실 간의 세력 겨루기와 조율 과정으로 읽을 수 있다. 금선공주는 황녀라는 자신의 지위를 존중하지 않는 시가 구성원들과의 대결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시아버지와 시동생 등이 황권의 정당성을 의심했다는 모함을 함으로써 가정의 문제를 가정 밖의 문제로 확대시킨다.¹⁶⁾ 이로 인해 사대부가와 황실 간에 갈등이 발생하지만 결국 도덕적

사건들은 분명 작품을 구성하는 의미 있는 한 부분이다. 그러나 소위 가문소설이라고 명명되는 국문장편소설의 공통된 속성은 가문의 창달과 가문의 결합, 영화 등에 관한 서술에서 찾을 수 있다.

15) 국문장편소설은 17세기 이래 확대된 가문의식의 소산이다. 사대부들은 양란 이후 심화된 사회적 균열과 계급적 정체성 상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념적, 정치적, 사회적 반동화의 국면에 이끌리게 되었으며 상호 배타적으로 당파, 문벌, 가문 내적 결속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기인하여 18세기 일대에 가문의식이 강화되었는데, 국문장편소설은 이시기 사대부계급의 세계관을 반영한 문학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장효현(2002), 앞의 책, 235~236쪽.)

16) “조무가 어제 아무런 까닭 없이 이르러 분노를 참지 못하여 최 상궁과 김 상궁에게 중형을 더하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습니다. 또 궁궐의 노비를 까닭 없이 베고 신에게 수없이 모욕을 주오나 다만 신에게만 그러하면 괜찮겠습니다만 윗사람에게 큰 잘못

우위를 점하고 있는 조씨 가문이 대결에서 승리하게 되고 금선공주는 공주 궁에 유폐되며 황실은 조씨 가문의 권위에 굴하게 된다.¹⁷⁾ 이 외에 조씨와 양씨 두 권세가 혼인으로 결합하여 상부상조하며 조정에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는 구도 등을 통해서도 <현몽쌍룡기>에 내재되어 있는 진지한 정치적 관심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결이 일회적이거나 흥미 위주로만 서술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전반에 걸쳐 심각하게 서술되고 있기 때문에 <현몽쌍룡기>는 현실정치를 중심으로 정치성을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임화정연>은 어떠할까? 이 작품은 명나라 태조 대에서 영락제 대까지를 주 배경으로 삼아 정문, 입문, 연문, 화문, 여문 등을 배경으로 이들 간의 혼인 문제, 그리고 정문과 입문 등의 중앙 정계 진출 과정을 그린 장편소설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이 작품을 처사형한문(處士型寒

문을 저지르며 어리석은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첩에 대한 참언을 듣고는 ‘너같이 악마 같은 여자를 내게 맡겨 나의 인륜의 도리를 방해하고 마음에 화를 돋우니 어찌 통한치 않겠는가? 비록 황제가 칭하나 대대로 어질지 못한 임금이다. 그 동생을 죽이고 조카를 죽이고 서서 황제가 되었으니 무엇이 광제가 있겠는가? 내가 맹세하여 악마 같은 금선을 죽이고 분노를 풀 것이다.’ 이리 말하니 차마 자식의 마음으로 견디지 못할 바이고 신하의 귀에 듣지 못할 바입니다. 폐하는 신의 마음을 살피셔서 국은을 저버린 죄를 다스려 처치하십시오.’ <현몽쌍룡기> 8권 42쪽. (김문희 외,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 현몽쌍룡기』, 1-3권, 소명출판, 2010의 현대역을 활용함.)

- 17) “왕씨는 침소에 갇힌 지 오래되었으나 조성의 용서가 없자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원망하여 왕 귀비에게 분함을 고하니 귀비가 답서에 이렇게 일렀다. 착하고 아름다운 덕행을 쌓으라. 내 비록 너를 잊지는 못하나 **금선공주는 황녀라는 존귀한 신분으로도 시부모를 공경하지 않자 남편에게 버림받고 궁중에 유폐되었는데 하물며 너의 형세는 더 말해 무엇 하겠느냐? 힘으로 너를 어찌 하겠느냐?** 마땅히 기운과 말을 낮추어 군자에게 사죄하고 덕을 잃지 마라.” <현몽쌍룡기> 12권 72쪽. 인용문은 왕 귀비가 조성의 부인인 조카딸 왕 씨에게 편지로 처신에 관해 충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왕 귀비는 황녀 신분에도 불구하고 사대부가와의 힘겨루기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 금선공주의 예를 들고 ‘형세’ 문제를 언급하는데, 이는 왕 귀비가 금선공주와 조무의 갈등을 부부간 문제 이상의 정치적 함의를 지닌 문제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門), 환로형가문(宦路型家門), 권문세가(權門勢家)의 연대를 통해 신형 권문세가군 출현의 소망을 그린 것이라고 보았다.¹⁸⁾ 그런데 기존 별얼 중심의 권문세가를 부정하고 새로운 방식의 가문 간 연대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시대 변화에 대응하려 한 고민의 흔적을 찾을 수 있지만, 연대한 가문과 적대세력 간의 팽팽한 대결이 유발하는 긴장감을 서사적으로 구현했는가의 문제에는 재론의 여지가 있을 듯하다.

<임화정연>의 전반부는 1세대에 해당하는 정공, 연어사, 화공 등이 간신 호유용과 그와 결탁한 진상문 때문에 고난을 겪는 내용, 그리고 정, 연, 화 가문의 여성들이 우연한 기회에 서로 인연을 맺게 되는 과정이 그려진다. 탐심이 강한 진상문이라는 인물이 각 가문의 여성들과 혼인할 욕심을 내지만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호유용에게 정공 등을 모함하여 이들이 고난을 겪게 되고, 또 각 가문의 여성들이 그의 마수를 피해 집 밖을 떠돌다가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이다. 애초 서로 연대할 의사를 가졌던 가문들이 결합하여 적대자 호유용이나 진상문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상문에 의해 각 가문이 연대하게 되는 구도를 취함으로써 가문 간 연대를 통한 적대 세력과의 대결이라는 긴장감은 감소된다. 가문 연대 그 자체가 이 작품의 최종 목표지점인 것처럼 보이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각설, 태조황제 텨하를 통일호시고 사히 승평호여 보위를 누리신 디 삼십여 년이라. 개국훈신은 다 죽고 묘당의 통신이 나렬호여시나 딘신소년이라. 뉴릭운의 신기 임의 유용의 희를 면치 못호고 요연통의 당호 위의 스화를 만나시니 통신이 능히 괴운을 펴디 못호고 디식 능히 닻토디 못홀디라. 텨명이 대명 태평의 마얼을 나리오시미 간신이 불쾌를 도모호미 역연이라. 이 또 엇디 감히 태산의 구드물 움기며 텨명이 구드물 밧고리오. (중략) 반노의

18) 조광국(2002), 앞의 논문, 163~190쪽.

역신의 흉모를 아라시고 대로호사 갑스로 하여곰 호기를 업포하고 덕당으로 낫낫치 좁아 엄형국문하시미 덕이 임의 턴즈의 신명하시물 도망치 못하여 개개복초하니 유용의 당뉴를 능디쳐참하고 가산을 적몰하며 도정이 청명하니 태평괴상이 식로이 빗나더라. 빅관이 혼열하고 유용의 천거흔 바 각읍 슈령을 다 파덕덕거하고 무죄히 덕흔 즈를 다 노호실시 명, 연, 화 삼인이 다 은사를 넘고 <입화정연> 19권 31-33쪽.

인용문에 나타나 있듯, 호유용에게 해를 당한 정, 연, 화 세 가문이 연 대하여 호유용의 전횡에 맞서기도 전에 호유용은 패망한다. 호유용의 반역과 패망이 역사적 사실일지라도 역사와 허구를 결합하는 것이 허용된 소설 장르에서 이를 역사에 따라 간략하게 처리하는 것은 이 작품이 가문 연대 이상으로 서사를 확장시켜 긴장감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면모는 정, 연, 화, 그리고 임씨 가문의 또 다른 적대자인 진상문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진상문은 정공의 아내인 진부인의 친조카이다. 네 가문의 공통 적대자인 진상문을 외부 인물이 아닌 친족으로 설정한 것도, 또 정공 등을 포함하고 정소저와 임규 등에게 해를 가한 진상문이 호유용 일당으로 몰려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작중 인물들이 보이는 관용적 태도¹⁹⁾도 이 작품이 정치적인 사안을 다룸에 있어

19) “어스등승 연스량이 소개하니 단상문 죽이미 너모 과흔 범이오 역적디스 의를 위하 여 보슈흔미 불가흔물 주혀여 변빅하니 상이 썬드르샤 빅노와 의논하시니 태반이나 죽이미 가치 아니다 혼디라 턴지 의계하시 죄인 단상문을 갑스당빅 튕군하라 하시니” <입화정연> 19권 39쪽. 인용문은 황제가 진상문에게 참형을 내리라 하자 연어사가 소를 올려 그의 죄를 감해달라 청하는 내용이다.

“저런 잔인박행이 므슴 일을 못하리오 턴벌을 넘어 형벌의 괴로오를 밧고 죽으미 반듯하나 단즈의 품슈흔 빅 건강하고 단슈치 아나 미간이 놓고 살성이 낫트나니 무궁흔 고초를 격고 명되 험하나 흥스홀 상모는 아니니” <입화정연> 19권 36쪽. 인용문은 진상문에 의해 죽을 위기에까지 처했던 임규가 호유용이 처형된 후 진상문의 앞

인물간의 첨예한 대결을 통해 적대자를 처벌, 혹은 회심시키는 구도보다는 포용적인 태도를 지향하며 하늘이 정한 개인의 운명에 순응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문에 해를 끼친 적대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이야기는 다른 국문장편 소설에도 자주 등장하는 것인데, 사건을 긴장감 있게 풀어나가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조씨삼대록>을 예로 들어보면, 이 작품은 가문 외부의 적대자 설강과의 대결에서 혼인으로 결합된 조씨와 양씨 가문 구성원들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는 과정을 긴장감 있게 그린 후 이 인물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관용을 베풀으로써 가문의 덕성과 위력을 확고히 하는 방식을 취한다. 용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가문의 덕과 위상을 대외적으로 한껏 드러내고 적대자로 하여금 해당 가문의 권위에 철저히 굴복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둔 것이다.

가문 간 연대와 관련하여 <임화정연>이 견지하는 느슨한 태도는 작품 후반부에 해당하는 여부와 정부의 결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권문세가에 해당하는 여부와 환로형 가문에 해당하는 정부의 결합에서 중심 문제로 다루어지는 것은 권력이 상이한 두 가문 간의 힘겨루기나 연대를 통한 새로운 대결의 모색이 아니다. 사혼 형식으로 권세가의 여성이 한 가문에 편입되는 경우 많은 소설에서는 그 여인과 여인의 가문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시가에 복종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그런데 <임화정연>은 황제를 부추켜 정연경을 사위 삼으려는 여금오의 사혼 의지를 문제 삼기보다는 자매 여희주와 정연경의 혼인을 시기하는 음심 있는 여미주가 정연경과의 혼인을 이루고 정부의 구성원이 되기까지 겪게 되는 고난 과정, 그로인해 파생되는 여희주의 고난, 그리고 여부의 며느리 조씨가 고부갈등 끝에 조천궁의 진인이 되는 과정 등 여성들의 고난 문제에 주안점을 둔다.

날을 예견하며 한 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임화정연>은 여타의 국문장편소설에서 첨예한 힘겨루기 서사로 확대되곤 하던 가문 연대와 유관한 사건들을 갈등 요소를 다수 소거한 채 형식면에서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임화정연>이 사대부 계층이 고민할 법한 권력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러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을 피하며, 보편적인 국문장편소설의 창작 관습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했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한다.

<임화정연>이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지나치게 조심스럽거나 타성에 젖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게 하는 예는 역사를 나름의 관점으로 재해석해보는 문제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임화정연>은 명태조 대부터 영락제 대를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하기 때문에 작 중 ‘정난변’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선행연구에서는 ‘정난변’을 작품 전반의 주제와 깊이 관련지어 살펴보는 작품과 부분적인 언급에 그치는 작품으로 고전소설을 나뉠 수 있고, 이때 정난변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작품은 소설 주인공의 출사 과정을 다루기 위한 하나의 계기나 소재로 그것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았다.²⁰⁾ 그러나 “조선시대 사대부의 사유 체계 내에서 트라우마로 작용했던 계유정난, 단종복위”²¹⁾ 등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하는 정난변을 다수의 작품들이 굳이 언급하면서 그것을 출사의 계기나 과정을 다루기 위한 소재로만 활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²²⁾ 정난변

20) 박영희, 『<쌍월옥소삼봉>의 중국 역사 수용』, 『새국어교육』 82, 한국국어교육학회, 2009.

21) 김정녀, 『몽유록의 공간들과 기억 - 역사적 공간을 배경으로 선택한 작품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1, 우리어문학회, 2011, 332쪽.

22) 단종 제신들과 건문제의 신하인 방효유 등을 관련지어 이해한 예는 실록에도 몇 차례 등장한다. (『효종실록』 권 9, 3년 11월 신사, 『숙종실록』 권 10, 6년 12월 정미 등.) 또 선행연구에서도 조선 초에 발생한 세조의 왕위찬탈과 흡사한 사건인 ‘정난지변’을 작품 배경으로 삼은 것은, 이 사건이 작품 내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는가, 전면적으로 다루어지는가의 문제를 떠나, 소설 향유층의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

을 본격적으로 다루든 부분적으로 언급하든, 작중 인물의 ‘출사’ 문제와 그것을 연관 지었다는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이고, 이는 정난변과 쌍을 이루는 세조의 황위 찬탈에 대해 간접적인 의견 표명으로도 볼 여지가 충분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쌍렬옥소삼봉>과 <옥호빙심> 같은 작품은 건문제에 대한 친연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²³⁾ 특히 <쌍렬옥소삼봉>의 경우 작품 전반에 걸쳐 정난변 이후 출사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룸으로써 “정통론적 충절의식을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²⁴⁾ 반면 <성현공숙렬기>나 <쌍천기봉> 등은 태조나 연왕(영락제)과의 인연을 이유로 정난변 이후 작중 인물들이 벼슬길에 나서는 선택을 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²⁵⁾ 선택의 결과는 다르지만, 영락제 대에 출사하는 문제에 관해 견해를 밝혔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런데 <입화정연>은 정난변을 대하는 태도가 이들 소설과 다르다. 정현과 진효렴 등 1세대 인물이 연왕의 황위 찬탈을 두고 ‘불인불충’한 행위인가 아니면 ‘천명’이 그에게 갔기 때문에 인가에 관해 대화를 나누지만 그것이 심화되지는 않는다.²⁶⁾ 대신 이어지는 서술에서 드러나듯, 이 작품은 황위 찬탈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출사의 가부를 두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찬탈의 여파를 어떻게 수습하는 것이 좋은가의 문제에 관한 견해를 드러내는 선에서 멈춘다.

는 부분이라고 하였다. (최윤희, 『<옥염기> 연구』, 『고소설연구』 19, 한국고소설학회, 2005, 61쪽.)

23) 조광국, 『고전소설에서의 사적 모델링, 서술의식 및 서사구조의 관련 양상 - <옥호빙심>, <쌍렬옥소삼봉>, <성현공숙렬기>, <쌍천기봉>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28,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1, 55~83쪽.

24) 박영희(2009), 앞의 논문, 210쪽.

25) 박영희(2009), 앞의 논문, 200~202쪽.

26) <입화정연> 22권 1~7쪽.

복원 성상은 건문의 절스흔 신하를 포당흐시고 자손을 허흐샤 덕화를 널니시고 덩현 등을 네우흐샤 너모 꺾박디 마오시고 형육을 존절이 흐샤 주문무를 범바다신죽 턴히 뉘 아니 열복흐리잇가. (중략) 이에 도셔를 나리오샤 절스흔 통신의 즈손을 사흐여 고국의 도라와 부모의 향화를 닛게 흐시고 덕몰흔 가산을 도로 차자 쥬게 흐시며 선도 신히 벼술을 구흐느니어든 듯히 쓰시며 원치 아니흐느니는 고향의 편히 잇게 흐시고 금빚을 더어 위로흐시니 인심이 열복흐고 원망흐던 뉘 도로혀 감탄흐여 귀순흐는디라 <임화정연> 22권 9-10쪽.

인용한 내용은 영락제와 그의 신하 임홍, 양사기 등이 전 대의 신하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두고 나는 대화와 그에 따른 처분을 다룬 부분이다. 전 대의 신하들을 재물과 벼슬 등으로 보상하고 출처의 문제도 그들의 뜻에 따라 처리하면 자연히 영락제에게 전대 충신과 그들의 자손이 귀순할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는 이러한 발언은, 이 작품이 정난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긴 했지만 정난변과 출사를 연관지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작품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정난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두고 ‘충절’의 관점에서 이 사건의 의미를 고려해보려는 깊이 있는 사고의 부재는 정현과 주어사 등이 영락제의 패초(牌招)를 거절하며 백이와 숙제의 충절을 언급해놓고, 금세 영락제 대(代)가 임규의 시대라는 말로 그의 출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맥락 없는 대화²⁷⁾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 남칭이 부모를 뵈셔 산둥의 깃드리미 흐르는 세월이 임의 스년의 니

27) “남칭이 상히 니르기를 동경 턴지 식로 등극흐시는 날이야 나의 시절이라 흐던 거시니 신군이 즉위흐시고 간당이 훗터져시미 정히 남칭의 시절이어니와 세상스를 축양치 못흐니 스녀디너의 남칭 부직 일항 무스한가” <임화정연> 22권 10~11쪽.

르러는 분분흔 전언이 연왕이 괴병하여 복경을 엄습한다 하니 심이 튼왕 연왕이 당당이 스킨디쥬 되려니와 역신 두 즈를 먼치 못하리로다. 슬프다. 신황데 실덕 업시 나라홀 일코 목숨을 도망하여 나라홀 가연이 버리니 가련흔 통신널부의 원흔이 유탕하리로다. <임화정연> 22권 32쪽.

(나) 어막의셔 세 번 복치고 방포하미 어좌를 다시 곳치거늘 심이 먼니셔 바라보니 단짓 태평괴상이오 일세 성주시라. 일월 궂튼 광휘 요순의 거동이 오 당태종의 영무와 한고조의 도량을 겸하여 하늘이 덩하신 바 딘 명턴지시니 망디여운이오 쥬디여일이라. 심이 대희 왈 이 분명 나의 님군이로다 <임화정연> 22권 57-58쪽.

인용문은 영락제 대에 출사하여 처사형한문인 임씨 가문을 일으키는 인물 임규가 연왕의 황위 찬탈을 바라보는 일관성 없는 시각을 잘 보여준다. (가)의 예문에서 임규는 연왕을 비록 사해의 주인은 되겠지만 “역신”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채 몇 장면이 지나지 않은 (나) 인용문에서는 그를 “나의 님군”이라고 칭한다. 큰 뜻을 품고 25세가 될 때까지 과장(科場)에도 나가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하는 인물이 특별한 계기도 없이 중대 사안에 대해 견해를 바꾼 것이다.

물론, 정난변에 대한 <임화정연> 입장이 이처럼 일관되지 않은 이유를,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비켜가려는 작가의 의도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굳이 세조의 왕위 찬탈을 떠올리게 할 가능성이 큰 ‘정난변’의 시대를 배경으로 삼지 말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임화정연>에서는 왜 이 시대를 작품의 배경으로 삼았는가에 대한 답을 명확히 주지 않는다. 선행연구에서는 <임화정연>이 남주인공 임규의 출사 때를 영락제 대(代)로 맞춤으로써 황실의 종통 계승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절의(節義)의 문제를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절의의 문

제에 있어서 훨씬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에 장편의 분량을 취하면서 주인공 가문이 벌열가로 정착해가는 양상을 세심하게 형상화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²⁸⁾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영락제 대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들이 출사(出仕), 절의 등의 문제에 직면할 때 어떠한 선택을 하였는가에 대한 답은 될 수 있으나, 왜 이 시대를 배경으로 삼았는가에 대한 답으로는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임화정연>이 가문의식이나 역사적 인식에 있어 이런 느슨한 태도를 보이는 까닭을 이 작품이 장편소설의 관습화된 글쓰기에 익숙해진 비교적 후대 소설이라는 점에서 찾는다. 17세기 이후로 창작된 많은 국문장편소설들이 가문의식, 가문의 흥기, 가문의 계승, 가문의 연대 등을 말했고, 충효열을 말했으며, 정난변이나 야반축영사와 같은 역사적 사건을 빌어 황위 계승 문제의 정당성을 말해왔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소수의 노론 벌열 가문으로 권력이 집중되면서 보편적 수준의 가문의식이 쇠퇴하고 전형적인 가문소설 향유의 영역이 축소되는 흐름과 <임화정연>이 전적으로 무관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뎠진 가문의식이나 역사인식과 대비될 수 있는 특징으로 는 무엇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

3. 편력자들의 서사

<임화정연>은 편력(遍歷)의 서사라고 할 수 있다.²⁹⁾ 정현, 연어사 등

28) 조광국(2001), 앞의 논문, 66쪽.

29) 편력은 여러 경험을 함, 널리 이곳저곳을 돌아다님으로 정의된다. 작중 다수의 인물들이 집 밖을 떠돌며 새로운 경험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들을 편력자들이라고 본 논문에서는 보았다.

작중 1세대 인물들은 유배를 가거나 공적 임무 때문에 집 밖을 떠돈다. 정윤희와 임규, 그리고 여종들을 비롯한 대다수 2세대 인물들은 혼사 장애나 적과의 대결, 혹은 공적인 임무 때문에 집 밖으로 나선다. 이들이 집 밖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일들은 그것에 직접적인 사회 고발의 목소리가 담겨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만하다.

장사(長沙)로 유배를 간 정현은 유배지에서의 의식(衣食) 해결을 도울 일손이 필요하여 향촌 사족의 딸 오씨를 첩으로 들인다. 작품은 부모 사망 이후 오씨 자매가 겪게 된 가난의 모습과 사족이라는 신분의식 때문에 오씨가 유배객의 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간략하게 말한다. 그러나 정현이 첩을 얻는 이 사건을 통해 가난한 향촌 사족, 특히 여성들이 겪었을 법한 고난에 대해 생각할 여지를 남긴다.

적대자의 독수를 피해 집을 떠나 연국 지경에 머물게 된 임규는 명환거족의 딸인 양씨가 부모를 잃고 촌가에서 더부살이를 하며 고난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된다. 양씨는 부모도 잃고, 진상문과의 혼인도 무산된 채 이곳저곳 떠돌다가 촌가 무뢰배들에게 겁치를 당할 위기에 처한다. <임화정연>에서 임규와 양씨의 인연은 연왕이 건문제의 황위를 찬탈한 사건으로 인해 삶의 터전이나 가족을 잃고 유리하게 된 백성들을 불쌍하게 생각한 임규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집 밖으로 나섰다가 우연히 양씨의 모습을 보면서 시작된다. 앞서 2장에서 <임화정연>이 연왕의 황위 찬탈 문제와 관련하여 진지한 역사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임화정연>은 정난변과 관계된 핵심인물보다 주변인물들이 겪는 고난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에 대한 위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다. 이는 이 작품이 역사나 권력자와 같은 중심보다 일상이나 주변부에 더 관심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

는 것이다. 비록 위로의 방법으로 임규가 양씨를 첩으로 삼는 것을 택했다는 점, 그리고 혼인 이후에는 양씨의 투기심을 다스리는 문제로 임규와 양씨가 갈등한다는 점 등을 볼 때, 역사적 사건의 의미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회의 문제적인 일면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한편, 순무어사 임무를 맡아 집 밖으로 나선 연권(연 어사)은 진상문의 혼인 압박을 피해 집 밖으로 나선 정운희 일행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화소저와의 혼인을 성사시키기 위해 불법적인 모의를 한 지방 양반 이창백 부자의 범죄 행위를 처벌한다. 이 사건은 연어사와 정운희, 화소저 등이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되며, 동시에 지방 양반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실상을 풍자하는 기능도 한다.

어식 쏘 분부혀 니싱을 잡아드려 형판의 울너 미니 니푹이 목을 노하 통곡혀거늘 아역이 입을 주여 질너 소리를 못혀게 하며 미를 드러 나아가 치니 푹이 부귀고량으로 몸의 조고만 가시도 달니여 보디 아녜다가 알프물 니괴디 못혀여 고기를 흐들며 어미를 브르고 웨디디며 두 눈이 뒤박여 살거 디라 흐는 소리 딘동흔디라 이십 당의 밋쳐는 미를 니괴디 못혀 쏘 아니라 닝슈를 먹고 복통을 어더 쉼스하던 거시 굿치디 못혀엇는디라 식도록 닝옥의 경야혀 복동이 편치 아니하고 대변이 무덩쉬러니 미를 마즈미 알프물 춤디 못혀여 미 나리는 적마다 쏙을 뱉니 집장스에 미를 드러 노호면 몸을 굽히려 디라 니푹이 울 적마다 흥 즐기 물디쑥을 디통의 물 뿔듯 깔기니 집장스에 닳과 옷시 두로 깃치니 약취 낭즈흔디라 (중략) 이의 어식 니푹을 방송흔디 디현이 어스괴 특별한 관전을 빅빅 사례하고 니싱은 니가 가인을 불러 업혀가거늘 이 썩 연씩 즈초디쑥을 보고 쑤디져 왈, 저런 거시 남지라 하고 외람이 옥 갖튼 쇼저를 흠모혀라 하며 일벼 우으며 일변 잔잉이 녀이러라 <임화정연> 10권 62-66쪽.

지역의 실세인 양반들이 결탁하여, 혼인을 강제하고 무고한 인명을 살해, 납치하려 한 중범죄에 관해 작품은 엄숙한 비판의 목소리만을 내지는 않는다. 형장에서 매를 맞으며 물똥을 줄줄 싸는 이창백의 모습을 과장되게 묘사한 후, 권력만 믿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지방 양반들의 타락 실상을 비판하는 역할을 하층 여인인 연파에게 맡김으로써 풍자성을 한껏 드러내는 것이다.

<임화정연>에 등장하는 편력자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정운희의 시비 석가월이다. 석가월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충직하면서도 재치있는 시비이지만, 봉건적 제약에 저항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정운희를 비롯한 상층 여인들과 함께 집 밖을 경험하는데, 그중에서도 석가월은 다른 시비들이나 상층 여인들이 접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건을 두루 경험한다.

석가월이 집 밖을 떠돌며 체험한 일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석가월 일행이 진상문의 혼인 압박을 피해 집에서 탈출한 후 가장 먼저 보게 된 사회의 부정적 단면은 거짓 승려 행세를 하며 음란 행위를 일삼은 사대부가 여성 집단이다. 이부상서 달공의 손녀인 묘정이 주지로 있는 청아암은 절을 방문하는 사내들과 음탕한 행실을 일삼고 풍교를 어지럽히는 곳으로 이름이 나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이다. 그런데 정운희 일행이 이를 미처 알지 못해 청아암에 들리게 된다. 그곳에서 여승들의 음행을 눈치 채 정운희는 도리를 내세워 즉시 절을 떠나야겠다고 하지만, 석가월을 비롯한 시비들은 더위를 피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주인 정운희를 설득하여 절에 머문다.³⁰⁾ 서사 진행에 있어 필수적이지 않은 이 일

30) “제승이 모다 빅가디로 함퉁하여 막음을 도도니 가월 등이 저 거동을 우이 녀이고 일변 희연흔를 니그디 못흔니 쇼계 탄왈 세상 녀지 다 고절청형이 빅희의 늑흔 뜻이 잇기논 어려온들 이러툃 무상흔 인물이 어디 이시리오 츤인 등이 스족의 녀지로다 하며 부처를 욱흔니 엇디 통한치 아니리오 쇼계 스 시으를 디혀여 제승의 음일방즈흔를 니르고 출하리 노상 고흥을 꺾글디언정 숙모를 츤즈가리라 스 시이 디왈 저

화를 통해 <임화정연>은 불교의 타락, 사대부가 여성들의 음행을 고발하는데, 특히 여종들의 입을 빌어 그들을 조롱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석가월은 아버지 유산을 독차지 할 욕심에 새어머니 육씨를 내치고 여동생을 창가에 팔아넘긴 진준이라는 시골 선비를 벌하기도 한다. 창모 마삼랑과 진준이 모의하여 누이 춘낭을 창가에 넘기지만, 석가월이 지혜와 도술로 춘낭을 구해내고 진준과 그의 아내 이씨, 그리고 마삼랑을 징벌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석가월의 도술 능력을 시험하는 에피소드이기도 하지만, 물질에 눈이 어두워 인명을 경시하는 사회의 부도덕한 면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청아암 사건과 유사한 면이 있다.

작중 인물들이 집 밖에서 보고 듣게 되는 이러한 사건들은 사회의 부정적인 면면을 은연중에 드러낸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다. 그리고 특히 석가월과 같은 하층 인물이 체제 내적 안주를 거부하고 집 밖으로 향하게 하는 촉매가 된다는 점에서 서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임화정연>은 이러한 의미 있는 계기들을 편력자의 서사라는 형식을 활용하여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4. 귀환의 서사와 확장의 서사

만약 정운희와 석가월 일행이 진상문 등이 가하는 혼인 압박에 순응하고 집 안에 머물렀다면 집 안팎에 존재하던 부조리한 문제들을 깨닫거나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

무리 빅가디로 농낙하여도 우리에게 간섭이 아냐 피츠 녀적니 두렵디 아닌디라 괴로오
물 잠간 춤아 극열이 디나거든 쥬아를 츠즈가미 맛당홀디라 이런 성열의 흥히시다가
블형하여 도츠의 낭패홀던디 이곳의서 괴로오미 더올가 흥이다” <임화정연> 7권
29~30쪽.

있을까?

스인이 보패슈식 등물을 몸의 장하고 쇼저는 님싱의 봉치흔 옥인과 혼셔를 품고 식비 문을 열고 바로 대로로 향하여 나가니 하애 저른디라. 오리디아나 동방의 일광이 오로거늘 쥬점의 가 츠를 스 마시고 나귀를 스 쇼저를 토키오고 스인이 가인 모양으로 가홍현 쥬어스딕 공직 강셔의 단니라 가신다 하고 흥노의 길을 므로 흥홀시 길이 너디 못흔 고로 허다 고초를 디니고 츠즈가니라 <입화정연> 5권 62-63쪽.

인용문에 서술된 것처럼 정운희 일행은 진부인과 진상문의 혼인 압박 때문에 남장을 하고 집 밖으로 나선다. 여성 본연의 모습으로 길을 떠나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정 내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적극적 행위이며 세상을 향한 여행의 출발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장면이다. 집 밖의 길이 익숙지 않아서 고초를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짐을 꾸린 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집을 나서서 유유히 길을 떠나는 이들의 모습은 악인의 음해나 각종 수난을 수동적으로 감내하며 인고하는 여타 고전소설 속 여성 인물들과 구별된다. 또 이들은 비록 남복을 한 채 사회로 뛰어들긴 했지만 자신의 여성성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성성을 지향하고 자신의 여성됨을 한탄했던 여성영웅소설 속 주인공들과도 구별된다.

그런데 집 밖으로 향했던 길 떠남의 종착점은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가치관에 따라 상이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집으로의 귀환과 집 밖으로의 확장이 그것이다. 정운희를 비롯한 상층 여성과 시비들은 ‘집(가정)’을 자신들이 머물 종착점으로 받아들인다. 이는 정운희가 처음 집을 떠날 때 “님싱의 봉치흔 옥인과 혼셔를 품고”고 나가는 것에서부터 예견된 일이었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말을 여성의식의 한계와 곧장 연관 짓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 모든 여성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결말에 이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임화정연>에서는 집 밖으로 나갔던 남성들도 중국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결말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확장의 서사를 지향하며 집 밖으로 향한 인물들이다.

<임화정연>에서 오랜 여행 끝에 집 밖으로의 탈출을 선택한 인물은 석가월, 그리고 고부갈등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여금오의 며느리 조씨이다.³¹⁾ 석가월은 앞서 말하였듯이 자신의 주인인 정운희를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해 남복을 하고 길을 떠났는데, 정운희 일행이 안전한 곳에 머물 때에도 심부름을 자처하며 세상 경험을 함으로써 함께 길을 떠난 일행들에 비해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었다. 남복을 한 채 남성들의 사회에 속해 그들의 호색에 대한 욕망의 일단을 알게 되었고, 또 전쟁터에서 남성들과 겨루며 사회를 경험한 석가월은 임규의 첩이 되어 가정에 안주하는 삶을 거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인 정운희와 적국 관계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남복을 한 채 임규와 이미 봉우의 도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의 첩이 될 수 없다³²⁾는 석가월의 말에는 3처 7첩을 두겠다는 말

31) 조씨의 경우 스스로 집을 나서서 여행한 후 자발적으로 도관 여도사의 삶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석가월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집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시어머니와 시동생으로 인해 집 밖에서보다도 더 큰 시련을 겪었고, 고전소설에서는 보기 드물게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며, 악한 시모이지만 그녀를 따라 유배를 떠나 고초를 겪는다. 또 꿈을 통해 자신의 전생과 앞날에 관한 정보를 얻고 선약을 먹고 신술을 깨친다는 점에서 압축적, 상징적 의미의 여행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2) “소비 으시로부터 쇼저를 피셔 경이 골육궂고 환난의 간고흐른 님상공을 위호요 쇼저의 정절을 세우고 소비 조츰 보호호미 노쥬의 덧덧흔 되라. 딘노애 천흔 일흠을 거즌고 쥬호고 텃진 과당호샤 소비로 님상공 괴실을 하다 호오니 소비 엇디 감히 님노야 괴실이 되야 우리 쇼저로 더브러 적국의 명호를 디어 츄마 안연이 이시리잇고 호믈며 소비 전일 님상공을 보야 언언이 봉우로 일크라 상하 테면을 상하왔습느디라 쥬야 송황호습느 빅어늘 안연이 다시 상공을 디하여 부쳐의의를 행호리오.” <임화정

을 공공연히 하는 임규의 호색한 욕망에 동조하기 싫은 마음과, 가부장에게 예속되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도록 여성들의 규제하는 봉건적 가부장제에 저항하고픈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³³⁾

집으로 귀환하지 않고 집 밖으로 다시 나온 석가월이 최종적으로 안착하게 되는 공간은 도관인 조천궁이다. 조천궁에 이르기 위해 석가월은 스승을 찾아가 수학하고 수년 간 고초 겪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외적인 힘에 의존하여 신분의 변화나 상승을 피하지 않고 석가월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월관이라는 여 도사의 이름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 달성은 남성의 옷을 입고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이루어낸 성취이기 때문에 더 의미심장하다.³⁴⁾ 물론 수년에 걸쳐 도를 얻고자 했던 석가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금오

연> 24권 20~21쪽.

- 33) 임규의 첩이 된 가월이 결국 양씨의 투기심 때문에 첩의 자리를 박차고 집을 떠나는 내용에서도 이러한 심리를 읽을 수 있다.

“가월이 고요히 누어 만복스랑하미 양시의 불초하미 부녀의 높흔 힘실이 업스니 투협교궁하미 틈심하나 유군의 조강통회오 즈네 가즈 삼부인 버금의 잇거늘 즈개 비록 권이 통하나 절노 더브러 상하의 증등하미 잇는디라 (중략) 개연이 세스를 사결하고 어저러운 흥진을 하디하여 믿음을 청정이 하고 시비의 버져나 청풍명월이 즈최를 북쳐 물외의 한가흔 몸이 되고져 뜻을 결하미” <입화정연> 36권 50~51쪽.

선행연구에서는 석가월이 탈속공간을 지향하는 이유를 초월 세계를 지향하는 인간의 존재론적인 문제와 연관지어 해석하기도 했고 (양민정, 『입화정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또 고차원적인 세계의 추구보다는 현실의 고난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보기도 했다. (한길연(2002), 앞의 논문.)

- 34) 비록 길을 떠나기 위해 남장은 했을지라도 배움을 청하고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석가월이 일부러 자신이 여성임을 은폐하려거나 한 것이 아님은 석가월이 기린동 청계선생을 만나 나눈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희라 그디 영화부귀를 부운곳치 녀이고 상국 은통을 초기갓치 녀여 디심하흔 유인을 버리고 초총 몸을 가져 의관을 곳치고 일흠을 김초아 의의 즈득하니 즈취흔 비어늘 엇던 고로 박병디인이라 하노노 월이 청파의 악연저상하여 이의 직비하고 꾸러알 천첩 가월은 과연 인가 청의라” <입화정연> 58권, 13~14쪽.

의 며느리 조씨가 하늘의 명에 따라 조천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석가월이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임화정연>이 지닌 계급의식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정이 석가월은 하층민이고 조씨는 사대부가 여성이기 때문에 천자와의 접촉이 불가능한 하층민 석가월을 대신하기 위해 고안한 무리한 것이라 할지라도,³⁵⁾ 집 안에서 고부갈등으로 인해 죽을 위기에 까지 처했던 조씨가 시모와의 화해를 통해 집안에 안주하는 결말에 이르지 않고 집 밖으로 나와 세계를 확장하는 서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는 분명 의의가 있다. 대체로 많은 국문장편소설이 시부모와 남편의 박대를 꾀꿨던 여성이 결국은 가족 구성원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귀환의 서사를 택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석가월과 조씨가 확장의 서사를 따라 최종적으로 안착한 도가의 세계는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가장 경계”³⁶⁾하는 곳이자, 신분이 아닌 법력의 고하에 따라 대우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석가월이 집 안에서 느꼈던 울분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각 집안의 시비들이 그곳에서 도문에 귀의하고자 하는 소망을 발원하는 것을 볼 때, 억울함이 있고 억눌린 자들을 위로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부인너 도라다니 녀뵈 마즈 도시의 출판디스를 못즈오니 부인이 탄 식고 골오디 도현궁이 화려하고 도시의 거동이 더욱 괴이하며 빅시 쥬족흐나 맞춤너 청춘화미 속결업스니 엇디 아런치 아니흐리오 삼인이 츠탄흐고 슬허흐나 피셔 갓던 시녀의 무리는 텃상옥경을 구경흠 궂트여 어즈러이 칭찬흐더라 넘상국 제희 빅시 등이 도라가 삼부인긔 관동 위의 빛나며 거룩흠

35) 한길연(2002), 앞의 논문, 342쪽.

36) “불연하다. 출가한 스님은 다 흥가디오 저런 즈는 더욱 도형 늑흐니라. (중략) 금일 산문의 늑흔 사름이 울 줄 아랏느니 칭심도 출가한 사름이 교만하여 남을 업슈히 너 이디 말나. 팔계 둥 교만이 웃듬 경계니라.” <임화정연> 58권, 5쪽.

과 도시의 괴이함을 전하며 칭찬하니 삼 부인이 다 골오되 제 비록 신기한 도행이 일시의 단동하고 거디 신선 곳터며 빗흔 바 지릭이 구산 갖트나 그 모습 귀하미 이시리오 일상을 명박한 공인으로 기리 궁딘하니 그 몸이 업셔 디미 그 즈최 민멸하여 외로운 공산의 혼 줍 흠이 되어 뉘라셔 그 향화를 니오리오 늦겨온 신세 디실노 가련하니 녀염가 농부의 디어미만 못흐도다 가시 골오되 출가하미 마디못홀 일이오나 천첩의 어린 쇼견의는 녀염 간고 혼 집 디어미 되어 슈다 즈식의 괴한을 넘녀하고 혹 피려흔 대비 무디흔 거동을 디하여 즈가 일시에 괴롭고 남의 고굉이 갖트여 평상을 곤궁히 디니니 출하리 출가하여 일신이 한가하고 청정하여 득도하면 죽어도 한가할 거시니 인간 뜻글의 구초코 더러운 향화를 밧느니의셔 낫디 아니흐리잇가 <임화정연> 67권 20-21쪽.

그러나 인용문에도 나와 있듯이 모두가 이 공간을 최고로 여길 수는 없다. <임화정연>은 소박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과 청정한 도관에서 도를 닦으며 사는 것에 관한 등장인물들의 상이한 시각을 보여줌으로써 어느 한쪽만을 드러내놓고 지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속세에서의 삶을 지향하는 인물들의 말이 추상적인 데 반해, 도관에서의 삶을 지지하는 가씨의 발언은 경험에서 우러난 듯 현실적이며 마치 여염의 삶을 경험해본 듯 구체적이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염가의 삶을 살아본 것처럼 체험이 구체적이고, 하층 여성인 석가월의 선택을 지지하고, 심지어 그녀를 중심에 두고 작품을 감상하는 독자가 생길 만큼³⁷⁾ 서사에 큰 비중을 두어 부각시킨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임화정연> 작가의 시각은 상층 양반의 의식보다는 그 반대편의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⁸⁾ 이는

37) 활자본 <임화정연>은 임규의 영웅성과 석가월의 지혜로움, 충성스러움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마무리 된다. 상층 여성인 정운희나 여희주 대신 하층 여성 석가월에 주목한 것이다.

38) 이는 <임화정연>이 19세기 세도정치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권문세가형 가문

인용문 속 사대부가 여성들이 ‘향화의 지속’에서 속세적 삶의 의미를 찾고 있지만 여타 국문장편소설이 그리고 있는 세속적 영화와 비교하면 너무나 소박한 것이라는 점을 통해서도 짐작해볼 수 있는 면이다.³⁹⁾

5. 여성 중심 확장 서사의 의의와 정치적 함의

신소설 속 여성 주인공의 젠더와 정치성 문제를 다룬 연구⁴⁰⁾에서 논자는 여성 관련 서사의 특징을 “소극적인 인종의 자세 못지않게 적극적인 모색이, 그리고 정지보다 편력과 방랑의 서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했다. 또 고전소설에는 여주인공이 늑혼 문제에 얽히는 경우는 많지만 “부모의 결혼 강요에 맞서 여성 주인공이 독립 변수로 가출을 결행하는 서사는 등장하지 않는데”, 신소설의 여성들은 자의로 집을 나선다는 것을 특징으로 꼽았다. 그런데 이러한 면은 <임화정연>에서 이미 이야기된 것들이다. 그리고 신소설이 가출을 감행했다가 결국은 집으로 돌아오는 여

군의 탄생을 희구했다는, 즉 사대부 집단의 정치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 선행 연구와 대비되는 지점이다.

39) 이러한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화정선행록>의 충효혜, <하진양문록>의 하옥주, <임화정연>의 석가월 등이 탈속공간을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신분이 상이한 인물들이 지향하는 탈속 공간의 성격, 그리고 지향에 내포된 의미를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충효혜와 석가월의 탈속 공간 지향의 의미를 “여성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기 위해 남성중심의 기존질서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한다.”(한길연(2002), 앞의 논문, 348쪽.)고 보았다. 그러나 <임화정연> 한 작품 안에서도 사대부가 여성인 조씨의 탈속 공간 선택과 석가월의 탈속 공간 지향의 과정과 무게감이 다른 것처럼, 가부장 중심의 질서를 거부하고 집 밖으로 나가는 삶을 지향하는 서사들의 같고 다른 점은 더 섬세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면을 빌어 논의하고자 한다.

40) 권보드래, 『신소설의 성, 계급, 국가-여성 주인공에 있어 젠더와 정치성의 문제-』, 『여성문학연구』 20, 한국여성문학회, 2008, 16~17쪽.

성 귀환의 서사를 특징으로 한다면, <임화정연>은 귀환의 서사와 아울러 확장의 서사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소설과 대비되는 지점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임화정연>이 가문이나 역사의 문제 등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 쉬운 주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 다소 관습화된 모습을 노출하는 반면, 작중 인물들을 편력자로 만들어 이들이 경험하는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며 편력 이후 집으로의 귀환과 집 밖으로의 확장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모두 다루는 그 지점을 통해 읽어볼 수 있는 이 작품의 사회적, 정치적 함의는 무엇일까? 가장 핵심적인 의미로는 상층 양반의 보수적인 세계관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중하층 계급의 현실인식이 작품에 녹아있고 그것이 긍정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에 균열을 가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소리라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성은 <임화정연>이 향유되었던 19세기 즈음의 조선의 사회, 정치적 분위기와 관련지어 해석해볼 여지도 있다. 기존 제도에 균열을 가하고자 하는 의지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것이지만 계급(신분), 성별, 처첩제도 등과 같이 특정한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기 시작한 시기가 이 때이기 때문이다.

앞서도 말하였던 것처럼 19세기 즈음의 조선은 사대부계층의 보편적인 가문의식이 쇠퇴의 길로 접어든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는 별열 정치의 회복을 꿈꿀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정치 모델을 구상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각자의 아이디어를 소설을 통해 구체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로지 가문의식에 긴박되어 가문 연대와 같은 문제만을 소설의 핵심 주제로 다룰 필요는 없다. <임화정연>의 경우 가문 간 연대를 이야기 하지만 그것을 그리는 태도가 다분히 관습적인 것은 국문장편소설이 사회적, 정치적 목소리를 냄에 있어 반드시 가문의식에 긴박될 필요가 없다는 변화된 문학의 인식을 보여주는 한 예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옥수기>의 별열지향성을 논하는 연구에서 <옥수기>가 <임화정연>과 같은 작품보다도 가문 연대 의식이 약화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선행 연구⁴¹⁾의 행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임화정연>이 명 태조 대부터 영락제 대를 주 배경으로 하며, 조선 세조의 왕위 찬탈을 대입하여 읽어볼 수 있는 정난변을 다루지만 그것에 관한 서술을 관습적 차원에서 하는 것 역시 시대와 관련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세조의 왕위 찬탈 이후 단종과 사육신의 복권, 생육신 성립 등의 문제는 조선 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논제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단종 제신’에 대한 포장이 확대되고 생육신의 범주를 확정하며 단종복위 운동 참여자들의 복권 문제를 두고 정치적 논쟁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18세기 정조대까지이다.⁴²⁾ 비록 19세기 순조 대에 단종제신의 충의를 현창하는 일이 있기는 했지만⁴³⁾ 정조대 이후로는 단종과 그의 신하들에 관한 문제가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보상 문제로 변모하게 되는데, <임화정연> 역시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태도가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⁴⁴⁾

41) 조광국, 「<옥수기>의 별열적 성향 - 작품세계, 향유층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30,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2, 85~113쪽.

42) 정만조, 「숙종조 사육신 추숭과 서원제향」, 『한국학논총』 33,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265~306쪽; 윤정, 「19세기 단종제신 포장과 사적 정비: 순조대 전반기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98, 한국사학회, 2010, 41~77쪽 등 참조.

43) 순조 대 이루어진 단종 제신 포장은 사실성을 엄중히 조사하여 단종제신을 확정하고 이를 국가가 관장하고자 했던 정도대의 의도와는 배치된, 현실적 필요에 따른 포장의 확대였다는 점에서 권위가 무력하게 되었다고 한다.(윤정(2010), 앞의 논문, 91~138쪽.)

44) <임화정연>의 정난변 수용에 관한 문제는 17-8세기에 이루어진 단종 제신 포장 운동의 사례 검토를 통해 좀 더 다각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앞서 2장에서 정난변을 바라보는 <임화정연>의 정치적 시각이 관습적이며 안이하다는 서술을 하였는데, 이는 <쌍령옥소삼봉> 등과 같이 황위찬탈 이후 출사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진지하게 다룬 작품과 비교할 때 비교적 선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정치적 속성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중요한 정치적 사건 중 하나로 동학농민운동을 꼽을 수 있는데, 동학은 인간존중, 여성평등, 경제개혁, 정치개혁 등을 주장했다. 1860년 창시된 동학은 “신분의 고하, 빈부, 남녀의 차별 없이 성경신(誠敬信)을 힘껏 다하여 한울님을 섬기고 수심정기로써 도를 극진히 닦으면 누구나 도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 했다.⁴⁵⁾ 이는 봉건적인 신분제도의 한계와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을 문제 삼은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입화정연>과 동학이 직접적 영향관계가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대신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하고, 빈천을 막론하고 교육을 통해 의식이 깨어질 수 있으며, 남녀 불평등의 문제도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등의 시대 개혁적 의식들이 싹텄고 이러한 것들이 문학이나 종교와 같은 형식을 빌어 이야기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선 사회에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입화정연>을 19세기 즈음의 조선 사회를 재조명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할 때, 집 밖을 중심으로 하는 서사 전개, 외부로의 확장을 지향하는 서사, 하층 여성을 재조명하는 내용 등은 모두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직접적인 정치적 구호에 비한다면 훨씬 미약한 표현이고, 또 근본적으로는 전통적인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작품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입화정연>이 국문장편소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균열의 지점들은 그 자체로 문학의 정치를 행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신소설이 드러내는 정치성의 특징을 진보적인 길을 걷는 듯했다가 1905년 이후 다시 보수적인 길로 돌아서고, 국권을 침탈당한 후 국가의 경계

출사 여부에 대한 상층 가문 구성원들의 관심사라는 주제가 아닌, 한 편의 소설이 자기 시대의 인식 혹은 사회적 사건들과 어떻게 교류하며 나름의 이야기를 형성해 가는가의 관점에서 작품을 들여다본다면 정난변에 관해서도 새로운 논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관한 연구를 추후에 진행하려 한다.

45) 황묘희, 「동학에 나타난 시대개혁론」, 『동학학보』 6, 동학학회, 2003, 329쪽.

밖에 존재하면서도 귀환을 꿈꾸는 방향과 회복의 서사라고 정리한다면,⁴⁶⁾ <임화정연>의 정치성은 봉건 체제와 기존의 관습이라는 토대에 자리하여 보수성을 지향하는 듯하지만, 비 양반적인 감성으로 집 밖의 세계를 지향하는 확장의 서사, 탈주의 서사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46) 권보드래(2008), 앞의 논문, 37~39쪽.

참고문헌

- 박재연 외, 『납화당연기봉』 1-6, 학교방, 2008.
- 김기동 편, 『활자본고소설전집』 8, 9, 아세아문화사, 1976.
- 김문희 외,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현몽쌍룡기』, 1-3권, 소명출판, 2010.
- 강용훈, 「'통속' 개념의 변천 양상에 대한 역사적 고찰」, 『대동문화연구』 8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9~48쪽.
- 권보드래, 「신소설의 성, 계급, 국가 - 여성 주인공에 있어 젠더와 정치성의 문제-」, 『여성문학연구』 20, 한국여성문학회, 2008, 7~20쪽.
- 김경연, 「통속의 정치화-1960년대 후반 김승옥 '주간지 소설' 재독(再讀)」, 『어문론집』 62, 중앙어문학회, 2015, 373~420쪽.
- 김유정, 「식민지 시대 관습의 법제화와 문학의 젠더 정치성 - 이선희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3, 한국여성문학회, 2014, 81~117쪽.
- 김정녀, 「몽유록의 공간들과 기억 - 역사적 공간을 배경으로 선택한 작품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1, 우리어문학회, 2011, 327~360쪽.
- 김지연, 「<임화정연>의 서사전략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192쪽.
- 노현주, 「남성 중심서사의 정치적 무의식 - 이병주 소설의 여성인물 형상화를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14, 국제한인문학회, 2014, 29~52쪽.
- 박영희, 「<쌍렬옥소삼봉>의 중국 역사 수용」, 『새국어교육』 82, 한국국어교육학회, 2009, 623~643쪽.
- 손유경, 「프로문학의 정치적 상상력-김남천 문학에 나타난 '칸트적인 것'들」, 『민족문학사연구』 45,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110~136쪽.
- 송정진, 「<임화정연> 연구 ; 필사본 72권 72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106쪽.
- 심경호, 「한국한문학이 지닌 다층성의 한 구현, 통속성」, 『한문학논집』 39, 근역한문학회, 2014, 9~35쪽.
- 윤정, 「19세기 단종제신 포장과 사적 정비:순조대 전반기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98, 한국사학회, 2010, 91~138쪽.
- 윤채근, 「한문소설에 등장하는 死産된 영웅과 그 의미 - 통속적 이웃의 탄생-」, 『한문학논집』 38, 근역한문학회, 2014, 37~62쪽.

- 이동재, 「담정 김려의 한시에 나타난 통속성 연구」, 『한문학논집』 39, 근역한문학회, 2014, 289~315쪽.
- 장수연, 민관동, 「중국 통속소설의 국내 유입과 수용 연구」, 『중국소설논총』 41, 한국중국소설학회, 2013, 41~72쪽.
- 장효현, 『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1~802쪽.
- 정만조, 「숙종조 사육신 추승과 서원제향」, 『한국학논총』 33,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265~306쪽.
- 정명기, 「강촌재본 『임화정연기봉』을 넘어서 - 세책본소설·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본·구월자본과의 비교를 통해서 본-」, 『열상고전연구』 41, 열상고전연구회, 2014, 51~119쪽.
- 조광국, 「고전소설에서의 사적 모델링, 서술의식 및 서사구조의 관련 양상 - <옥호빙심>, <쌍털옥소삼봉>, <성현공숙렬기>, <쌍천기봉>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28,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1, 55~83쪽.
- 조광국, 「<옥수기>의 별렬적 성향 - 작품세계, 향유층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30,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2, 85~113쪽.
- 조광국, 「<임화정연>에 나타난 가문연대의 양상과 의미」, 『고전문학연구』 22, 2002, 163~190쪽.
- 진재교, 「조선조 후기 정치 장에서의 권력향배와 한문학-다산 정약용의 문학을 읽는 하나의 방법」, 『고전문학연구』 46, 한국고전문학회, 2014, 337~372쪽.
- 최윤희, 「<육엄기> 연구」, 『고소설연구』 19, 한국고소설학회, 2005, 59~86쪽.
- 한길연, 「탈속 공간을 지향하는 여성영웅들에 관한 소고 -<화정선행록>의 ‘충효혜’와 <임화정연>의 ‘석가월’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7, 국문학회, 2002, 325~355쪽.
- 한길연, 「<도앵행>의 ‘채치있는 시비군’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349~382쪽.
- 한길연, 「모성 담론의 문화적 형성과 재현: 고대에서 근대전환기까지 모성 담론의 문화적 조명」,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223~266쪽.
- 허순우, 『『임화정연』 소재 “첩 관련 서사”의 양상과 그 의미』, 『어문논집』 67, 민족어문학회, 2013, 153~185쪽.
- 황보희, 「동학에 나타난 시대개혁론」, 『동학학보』 6, 동학학회, 2003, 325~354쪽.

ABSTRACT

Political Nature of Popular Novels, Hinted from Narrative Attributes
of *Limwhajungyoen*(林花鄭延)

Hur, Soon-woo

This study aims for examining *Limwhajungyoen*, a full-length classic novel written in Korean, using the notion of 'political nature', which is frequently defined as a movement that stands against the hegemony of dominant culture and identity, causes crack in 'public security(reigning)', thus turns the process of equality into an actuality. The reason this study now puts its focus on political nature of *Limwhajungyoen* despite a number of preceding studies the key words of which were politics-related notions like 'riot control(靖難變)', 'meritorious families(閥閥)', and 'solidarity of families(家門連帶)', is that the existing politics-related arguments were made mainly with male characters on the center of considerations. This made it plausible that if we equally focus on the acts and experience of the other half of population, we may draw a new interpretation related with 'political nature'. Another reason of choosing *Limwhajungyoen* as subject of examination is that the novel is a piece of popular literature which is in contrast with gentry literature, and was read in around 19th century, late Joseon Dynasty period. I wondered what the 'Politique de la Litterature' would be like, seen from a popular novel that sets family and politics as its main subject in 19th century, when once-common consciousness of family of gentry class was on its decline and the territory of full-length novels and the readers also started to shrink.

To find the answer, I first examined the novel while concentrating upon its political attributes — mainly consciousness of family and history —, whereupon the consciousness of family or that of history discovered in the novel was as much or somewhat less than those discovered in

full-length Korean novels read earlier. Instead it is identified that *Limwhajungyoen* uses its characters who roam — or play their part — out of their homes to expand the stage of the story, thus draw various events in the society as well as those in the families, satirize them, and shows its political nature that creates a crack in the firmly androcentric and upper-class-centered society. And through the wandering characters who don't make their way home in the end, this novel secures its own significance by showing a narration of escape and expansion — on the hidden side of its narration which seems to aim at feudal system or existing tradition — that aims at a world out of home with non-gentry sensibility. This characteristic is also meaningful in that it shows a contrast with a characteristic of new-style novels which includes expansion to outdoors yet ultimately boils down to a narration of return.

Key Words Popular Novels, Political Nature of literature, roam, narration of expansion, narration of return.

논문투고일 : 2016.7.14

심사완료일 : 2016.8.8

게재확정일 : 2016.8.18